

“안철수당 이미지로 정권교체 어려워” 당내 논란 점화

국민의당 의총 정체성 놓고 열띤 공방

총선 후보비 파문 국면 등으로 그동안 침묵했던 국민의당 의원들이 26일 의원총회에서 ‘안-박(안철수-박지원)연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재의 ‘안철수 당’ 이미지는 당의 생존은 물론 내년 대선도 제대로 치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의 의사 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박지원 원톱 체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방법론으로는 비대위 체제를 조기에 종식하고 올해 내에 전당대회를 개최, 당을 정상화시켜 내년 대선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날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서 황주홍 의원은 “국민의당이 ‘안철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전 대표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의사 결정 과정에서 탑다운(하향식) 방식보다는 집단 지성을 모으고 중지를 모아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의원은 “현재의 ‘안철수 당’으로 안 의원은 어려워지고 정권 교체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처럼 안 전 대표 위주의 당으로 가면 순하규 전 상임고문

“비대위 체제 종식... 조기전대로 당 정상화를”

박지원 “겸직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

같은 사람이 오겠는가”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수권정당이 되려면 안 전 대표 한 사람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겸직 체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비정상적인 비대위 체제를 끝내야 하고 비대위원장-원내

대표 겸임은 안 된다”며 “당헌·당규가 만들어지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겸직에 대한 원칙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돈 의원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겸직 문제는 토론 대상이 아니다”며 “원내 제3당으로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의

논란과 관련, “전대를 올해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지역위원장 선임을 마치면 전국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대표를 선출하면 되며 이는 의지에 문제”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국민은 당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보다 국민의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떠한 정권 창출의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주목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창출의 영광로가 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한 사람만으로 승리 못 한다는 것을 잘 안다”며 “안철수의 중도·보수 정치와 천

정배의 개혁 정치, 정동영의 통일정책을 위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8월 말까지 당원 전수조사가 끝나고 당헌·당규가 정비되는 대로 겸직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며 “지금 당원이 8만5000명 정도인데 아직 전대를 치를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 내에서는 예산 국회가 12월 초에 끝나면 12월 중순에 전당대회를 개최, 대표 등 지도부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당을 대선 체제로 가동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에 손잡고 잘해 봅시다” 당권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부터)·추미애 의원·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반포구 엘리체컨벤션에서 열린 서초갑 지역 대의원대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걸 출마, 정청래 불출마... 오늘 후보등록

더민주 당대표 경선 4파전... 컷오프 변수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26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종걸 의원이 출마 쪽으로 기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다음날인 2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대위원직을 사퇴하고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출마를 검토했던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당대표 출마 여부 고민이 깊고 깊었지만 불출마를 선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대표 경선은 추미애·송영

길·이종걸 의원과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의 4파전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추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은 친문(文) 및 주류 후보로 분류된다. 송·이 의원은 비주류에 속하지만 송 의원의 경우 주류와 거리감이 멀지 않는 평가다. 이 의원은 ‘비주류 단일후보’임을 내걸고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본선 후보 3명을 추리는 ‘컷오프’(예비경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경선은 당지도부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 소속 자치단체장 등 370여명의 중앙위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일단, 당

조직이 법진노 위주로 구성됐다는 면에서 주류 측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주류 측 후보가 많아서 변수는 있다. 또 컷오프 결과, 본선에 오른 주류 측과 비주류 측 후보 수에 따라 본선경쟁력이 차이가 날 수 있어 후보들은 컷오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경선이 끝나면 8월27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게 된다. 대의원의 현장투표(45%), 권리당원 ARS투표(30%), 일반당원 여론조사(10%), 일반국민 여론조사(15%)를 통해 경선이 진행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호남 ‘공동정권론’ 펼치겠다”

대표경선 출마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8·27 전당대회에서 대표 경선에 나서는 송영길 의원이 26일 더민주와 호남의 ‘공동정권론’을 내세웠다. 전남 출신인 송 의원은 이날 광주지역 국회의원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가 대표가 되고 더민주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실질적으로 3기 민주정부는 호남과 더민주의 공동정권 성격을 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 지역 출신이 대권도 먹고, 당권도 먹으면 당에 희망이 있겠나”며 호남 대표론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대선 후보의 사조적을 배제하고 당의 공조적을 전면으로 내세울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보수 정

권에서 소외받았던 호남 인맥을 장관 등 정부 부처의 주요 보직에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대표 경선에서 실패한다면 호남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소외받을 수 있다”며 “당내 일각에서 ‘지난 총선 승리는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꺾박 받으면서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더민주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송 의원은 “대표 경선 구도가 진문(진문재인) 진영의 지지에 연연하는 ‘진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콘텐츠와 비전을 놓고 정당하게 경쟁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창출의 동력을 마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송 의원은 당내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과거의 리더십으로는 부족하며 ‘뉴 문제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야권 및 호남 민심의 분열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권과 대권을 분리했다면 분당까지 뺐겠느냐는 아쉬움이 있다”며 “문 전 대표가 욕심 부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호남 민심이 지지를 철회하면 정계를 떠나겠다’는 문 전 대표의 지난 총선 발언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라면 언젠가는 정면 돌파해야 할 문제”라며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민주 유은혜-양향자, 광주 표심잡기로 최고위원 경선 레이스 출발

유, 오월어머니집 방문

양, 5·18민주 묘지 참배

더불어민주당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성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유은혜 의원과 양향자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장이 ‘광주 민심’잡기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다. 유 의원은 26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오월어머니집 방문, 광주 지역위원회 등을 돌며 당직자들에게 최고위원 도전 배경과 포부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27일에는 전남 지역위원회를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오는 28일 후보 등록에 맞춰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이날 광주 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대선에서 이기려면 생활 속에서 표심을 움직이고 지역 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여성, (유권자들과) 1차 접촉면인 지역 여성위원회와 여성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들이 노력하고 헌신한 만큼 인정받도록 공천 30% 등 여성의 정치참여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선인 유 의원은 “여성 최고위원만이 아닌 여성위원장을 겸임하는 만큼 전국 여성리더십센터를 중심으로 여성 의원들의 의정활동, 여성 지방의원들과의 소통, 신인발굴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특히 현역의원으로서 이슈를 만들고 계획, 실천하는데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원외 인사인 양 위원장과의 차별성도 강

조했다. 전남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한 양 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양 위원장은 광주 서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과 시·구 의원들을 만나 출마의 변을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위원장 8명은 이날 양 위원장 지지를 선언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지만, 지역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한 당규(33조 11항) 조항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지선언을 철회했다. 더민주 여성 최고위원은 여성 대의원 현장투표와 여성 권리당원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로 선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